

伍子胥와 중국의 복수 문화*

권운영**

<목 차>

1. 서론
2. 伍子胥와 주변인물
 - 2.1 楚國 시절
 - 2.2 吳國 시절
3. <오자서전> 속 복수 이야기
 - 3.1 倒行逆施
 - 3.2 臥薪嘗膽
 - 3.3 중국의 복수 문화
4. 한국 대학 수업에서의 <오자서전> 재현
5. 결론

1. 서론

伍子胥는 楚國 사람으로 이름은 員이다.¹⁾ 字는 子胥이고, 원래 초국 명문집안 사람으로 아버지 伍奢는 초 평왕의 태자 建의 훈도를 맡는 太傅였다. 오사는 少傅인 費無忌의 모함으로 큰 아들 伍尚과 함께 억울한 죽음을 맞는다. 오자서는 혼자 吳國으로 도망가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오자서는 春秋 시기

* 본 논문은 2020년도 신한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신한대학교 국제어학과 조교수(chuntian@empas.com)

1) 伍子胥(B.C.559-B.C.484): 伍子胥者, 楚人也, 名員.(司馬遷, 《史記·伍子胥傳》, 北京: 中華書局, 1996年 참고). 오자서의 이름은 員이다. '員'은 우리말 독음으로 '원'이나 여기서는 '운'으로 읽는다.

吳國의 大夫이자 군사전략가로 인정받으며 활동하게 되었다. 그는 항상 아버지와 형의 원수인 楚 平王에 대한 복수의 기회를 엿보았고, 司馬遷의 《史記》에도 전하듯이 중국 역사상 독보적인 복수의 화신으로 손꼽힌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중국의 춘추 말기로, 戰國 시기 이전에 오랜 시간 전쟁을 겪고, 동일 국가 안에서도 제후, 대부 등 세력 다툼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던 복잡한 시기이다. 그는 초국에서 버림받은 후, 오국에서 《孫子兵法》의 孫武와 함께 오국의 전성시기를 이끌어 낸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가 초국에서 오국으로 목숨을 걸고 넘어가게 된 것은 앞에서도 밝혔지만, 아버지와 형이 억울하게 죽고 난 후,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이야기는 중국의 강남 지역의 대표적인 복수 이야기로, 소설, 연극, 오페라 등의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수천 년간 전해져온다.

오자서에 대한 이야기는 필자가 중국의 복수 문화의 예제로 대중강연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이다. 또한 중국문화와 관련된 수업에서 주로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복수'에 관한 문화적 인식 차이와 해석이 다름을 이해하는데 좋은 소재로 사용해 왔다. 가까운 나라지만 우리는 중국과 문화적 인식 차이 때문에 때론 갈등을 겪기도 한다. 최근 몇 년 전에 겪었던 사드 사건이 가장 큰 예라고 할 수 있다. 한중 관계에 있어서 문화적 이해는 단순한 이해에서 나아가 정치·경제·외교적 교류에 있어서도 그들의 삶과 문화를 통한 성공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임을 이미 알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오자서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복수 문화의 역사적 근원을 파헤쳐 보고자 한다. 그리고 오자서의 인물적 특징, 그가 살았던 역사적 배경 등과 함께 중국 복수 문화 형성과의 영향관계를 통해 중국 강남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자료로 제공하는 데 연구 목적을 삼는다. 마지막으로 오자서에 관한 복수 이야기를 한국 대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우리 정서에 맞는 문화콘텐츠로 개발할 때 어떤 특색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복수에 대한 온도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자서는 같은 시기 활약했던 손무나 다른 역사적 인물에 비해서 활약상이

뒤떨어지지 않지만 복수에 앞장섰다는 이유 등으로 그의 능력이 저평가된 인물 중 하나이다. 그러나 문학적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그의 《사기·오자서전》은 闔閭, 夫差, 句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臥薪嘗膽 고사의 근거가 되는 작품인 만큼 그 가치를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사기·오자서전》의 이야기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오자서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 발전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자서와 중국의 처절한 복수문화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중국과의 외교, 경제 무역 등의 관계에서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문화적 자료라고 생각된다. 특히 앞서서도 밝혔듯이, 사드 사태를 겪은 양국 관계에서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복수 관념은 중요한 이해 요소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연구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사기·오자서전》 이야기를 통한 오자서 일생에 대한 고증이다. 오자서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서사문학 작품에 등장하고 그 이야기의 전말이 장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역사서로서의 《사기·오자서전》에 등장하는 오자서의 생애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사기·오자서전》에 등장하는 고사성어 이야기를 통해서 오자서가 진행한 복수의 의미 특히, 중국 문화에서 제시하는 '복수'에 대한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것이다.

셋째, 필자는 대학 전공 수업 현장에서 오자서의 이야기를 강의하면서 학생들과 한국식 문화콘텐츠를 함께 개발해 본 바 있다. 한국과 중국의 복수 문화에 확연한 온도차가 있음을 이해하고 한국 학생들이 제시하는 오자서 이야기로 꾸며보는 문화콘텐츠의 예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복수'의 의미에서 출발해서 중국의 복수 문화와의 인식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2. 伍子胥와 주변인물

復讎란 무엇인가? 우리들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복수’를 꿈꾸는가? 복수란 ‘원수를 되갚다, 앙갚음’이라는 뜻으로 특정한 대상에서 ‘원한’이란 심각한 감정을 가졌을 때 떠올릴 수 있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때 복수를 생각할까? 아침 출근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내 어깨를 세게 치고 지나가서 고통을 느꼈다고 그 사람에게 복수를 논하는가? 그렇지 않다. 복수를 위해서 한 평생을 바치는 역사 인물을 간혹 볼 수 있는데, 한 인간의 일생을 좌우하는 목표이자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절실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복수는 그 대상이 존재하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일련의 사건을 통해 형성되는 것인데, 오자서 역시 그의 일생에서 이런 원한을 생각하게 할 만한 관계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오자서의 생애는 復讎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초국 시절과 복수로 일상을 채우는 오국 시절로 나뉜다. 그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주로 《사기·오자서전》의 기록을 근거로 살펴보았다.

2.1 楚國 시절

그가 초국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서 살던 시기는 춘추 말기 楚 平王 때였다. 평왕은 오자서의 아버지인 伍奢를 太傅로 삼고, 그 아래에 費無忌를 少傅로 삼아서 태자인 建의 스승을 맡아보도록 했다. 오사는 덕망이 높고 태자와의 사이도 두터운 인물이었다. 그러나 소부인 비무기는 어떻게 하면 초 평왕의 눈에 들지를 생각하는 아침꾼에 불과했다.

당시 초국은 주변국들과의 화친을 통해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초 평왕은 서북쪽의 秦國과 우호관계를 맺고자 진국의 공주를 태자비로 맞이하려고 했다. 이 일은 비무기가 秦國에 파견되면서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게 되었다. 秦國 공주의 미모가 매우 출중한 것을 보고 초국으로 돌아온 비무기가 평왕의 환심을 사려고 秦國의 공주는 평왕이 차지하고 태자에게 다른 여자를 구해주면 된다고 건의했기 때문이다. 평왕도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진국의 공주 사이에 아들 軫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이후 평왕이 죽고 昭王에 즉위하게 된다. 결국 태자는 수도인 郢에서 멀리 떨어진 邊境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러나 비무기는 언젠가 평왕이 죽고 태자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웠으므로, 평왕에게 태자 건이 변경지역에서 역모를 도모한다고 모함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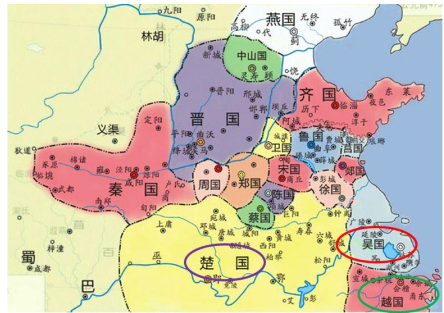
평왕은 비무기의 말이 의심스러워 태부인 오사를 불러서 건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자 오사는 “소인배인 비무기의 말을 믿고 어찌 아들을 믿지 않으십니까?”라고 충언을 올렸고 이는 잠시 뜻이 받아들여지는 듯했으나, 결국 비무기의 모략에 태자 건을 죽이라는 어명을 내리고 건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오사 역시 함께 잡아들였다. 다행히도 누군가 태자를 도와서 먼저 도망가게 해 준 덕분에 건은 일단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이때 비무기는 멈추지 않고 평왕을 다그쳤다.

비무기는 평왕에게 “오사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모두 재능이 있으니 죽이지 않으면 장차 초나라의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인질로 삼아 그들을 불러들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초나라의 후환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왕은 오사에게 사신을 보내 “너의 두 아들을 불러오면 살려주겠지만, 불러오지 못하면 죽일 것이다”라고 하자, 오사는 “오상은 사람됨이 어질어 부르면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운은 사람됨이 고집이 세고 참을성이 강해서 큰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녀석은 이곳에 오면 부자가 함께 사로잡힐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틀림없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왕은 이 말을 끝이 듣지 않고 사람을 보내 두 아들을 부르며 “너희들이 오면 내가 너희 아버지를 살려 줄 것이며, 오지 않으면 아버지를 당장 죽이겠다”라고 하였다. 오상이 가려고 하자 오운이 “초나라에서 우리 형제를 부르는 것은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자가 생기면 나중에 후환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아버지를 인질로

삼고 거짓으로 우리 형제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가 도착하면 부자가 함께 죽을 것이니 그것이 아버지의 죽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간다면 복수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차라리 다른 나라로 도망쳤다가 병력을 빌려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다 같이 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²⁾

“오자서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모두 재능이 뛰어납니다. 죽이지 않으면 장차 초국의 후환이 될 것입니다.”라는 말은 초 평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평왕이 태자 건을 죽이려고 하자, 태자 건은 宋國으로 달아났다. 앞서서도 밝힌 바와 같이 마음이 급해진 비무기는 오사와 그의 두 아들에게도 죄를 묻고자 했다. 아버지인 오사를 인질로 잡고서 두 아들을 불러들여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다. “사람됨이 어진” 큰 아들은 이를 알면



[그림 1. 춘추시대 형세도]

서도 아버지에게 가서 죽임을 당했지만, “사람됨이 고집이 세고 참을성이 강한” 작은 아들 오자서는 아버지에게로 가지 않고 송국으로 달아난 태자 건에게로 달아났다. 오자서는 달아나기 전, 그의 벗인 申包胥에게 자신이 반드시 초국에 대한 원수를 갚겠다고 다짐했고, 신포서는 반드시 조국인 초국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면서 오랜 친구지간이지만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다.³⁾

오자서는 태자 건을 만날 수는 있었지만, 태자 건은 송국에서 내란이 일어나, 다시 鄭國으로, 다시 晉國으로 옮겨 다니며 이리저리 떠돌다가 鄭國에서

- 2) 無忌言於平王曰：伍奢有二子，皆賢，不誅且爲楚憂。可以其父質而召之，不然且爲楚患。王使使謂伍奢曰：能致汝二子則生，不能則死。伍奢曰：尚爲人仁，呼必來。員爲人剛戾忍，能成大事，彼見來之并禽，其勢必不來。(司馬遷，《史記·伍子胥傳》，北京：中華書局，1996 참고)
- 3) 일찍이 오자서와 신포서는 친구지간이었다. 오자서가 도망칠 때, 신포서에게 “나는 반드시 초국을 뒤엎고 말 것이다”라고 하자, 신포서는 “나는 반드시 초국을 보존시킬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 始伍員與申包胥爲交，員之亡也，謂包胥曰：我必覆楚。包胥曰：我必存之。(司馬遷，《史記·伍子胥傳》，北京：中華書局，1996 참고)

피살되고 만다. 오자서는 태자 건의 아들인 勝을 데리고 吳國으로 달아났다. 그는 달아나는 중에, 어부의 도움을 받아 강을 건널 수 있었고, 중병에도 걸리고 구걸도 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겨우 오국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는 이제부터 복수를 위해 한 발짝씩, 그리고 몸을 낮추어 조심조심 나아가게 된다.

오자서가 초국에서 오국으로 도망가는 이야기는 元代 雜劇인 《伍員吹簫》⁴⁾에 극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사기·오자서전》에는 오자서가 걸식했다는 이야기만 있을 뿐 浣沙女가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야기는 따로 전하지 않는다. 오자서가 극적으로 오국에 도망간 이야기가 대대로 이어지면서 잡극에서는 완사녀와 완사녀의 모친과 형제가 함께 등장하기에 이른다. 완사녀에게 자신이 먹은 음식이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자 완사녀는 흑여 걸릴까 두려워 오자서에게 이후 복수에 성공하거든 자신의 가족에게 보은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강물에 뛰어들어 자진한다. 뒤 이어 만난 어부 閻丘亮은 일찍이 대부까지 지낸 사람이다. 그가 오자서가 강을 건넌 후 감사의 뜻으로 보검을 선물로 바치자, 여구량은 오히려 이를 마다하고 자신의 아들의 훗일을 부탁하면서 오자서를 도운 일이 발각되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자결한다. 완사녀와 여구량의 도움과 자결은 오자서가 초국에 대한, 부형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굳건히 하는 촉매제가 되고 이후 오자서가 복수에 성공한 후 두 사람에게 보은할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위의 작품 외에도 《楚昭公》·《浣沙記》 등 오자서와 관련된 희곡 작품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중국인들에게 사랑받아왔다. 그러나 특히 《오운취소》는 오자서가 초국 시절의 관계를 청산하고 오국 시절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 사건과 그가 복수를 더욱 절절하게 결심하게 되는 여러 요인을 재배치함으로써 극적 효과를 상승시켰다는 데 그 가치가 있다.

4) 《伍員吹簫》: 元代 李壽卿이 오자서의 복수 이야기를 토대로 쓴 雜劇으로 4折 1楔子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인물은 오자서가 걸식하는 과정에서 만난 浣沙女와 어부 閻丘亮(여구량)이 오자서가 강을 건너서 오국으로 도망가는 것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결함으로써 그가 무사히 도망갔다는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도왔다. 훗날 오자서가 비무기와 초국에 복수한 후, 두 사람에 대해 보은했다는 이야기를 극적으로 잘 묘사해서 오랜 기간 사랑받은 작품이다.

2.2 吳國 시절

오국에는 당시 吳王 僚가 통치하고 있었고, 오왕의 사촌 동생인 公子 光이 장군으로 있었다. 오자서는 고달픈 몸을 추스르면서도 복수에 대한 마음을 곱씹고 있었다. 그러나 오국 사람이 아닌 터라 쉽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우선 초 평왕의 손자인 勝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정세가 그에게 유리하게 변하기를 기다렸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가 오국에 도착했을 때, 오왕에게 인사를 한 적이 있다. 그가 초국에서 도망치면서 오국 변경의 상황을 살펴봤는데, 초국의 변경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오국에게는 공격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왕에게 초국을 공격하라고 직언했는데, 공자 광이 이를 저지했다. 오자서가 초국에 복수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었는데, 이를 듣고서 오자서는 공자 광이 오왕이 되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자객을 소개해 주고 조용히 때를 기다린 것이다.

5년이 지나, 초 평왕이 죽고 소왕이 왕위에 올랐다. 초 평왕이 죽은 틈을 타, 오왕 료는 아우 둘에게 명령을 내려 군대를 출동시켜 초국을 공격하게 했다. 그런데 초국을 공격하느라 오국이 텅 비게 된 사이, 공자 광은 오자서가 소개시켜준 자객인 專諸의 도움으로 료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바로 오왕 闔閭⁵⁾이다. 합려는 여러 차례 초국을 공격한 후, 마침내 초국의 수도 郢을 차지하게 됐다. 오자서는 이렇게 해안을 가지고 있었다.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왔다. 오자서는 초국에 도착하자마자 초 평왕이 죽고 없자 초 소왕을 찾았다. 소왕도 도망가고 없자 분을 참지 못하고 평왕의 묘를 파헤친 후 시신에 채찍질을 했다. 이때, 신포서가 오자서의 행동이 도에 어긋난다고 여겨서 秦國에 도움을 요청한 이야기가 《사기·오자서전》에 전한다.

신포서는 산중으로 도망친 후 사람을 보내 오자서에게 “그대의 복수는 너무 심

5) 闔閭(B.C.537~B.C.496): 闔慮라고도 한다. 이름은 光이고 공자 광이라고도 일컫는다. 오왕 諸樊의 아들이다. 춘추시기 오국의 군주이고 군사를 통솔하는데 능했다. 기원전 514년부터 기원전 496까지 오왕에 재위했다.

하구나. 내가 듣기로는 ‘사람이 많으면 한때 하늘을 이길 수 있으나, 일단 하늘의 뜻이 정해지면 사람을 무찌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일찍이 평왕의 신하로서 친히 北面하여 평왕을 섬겼던 그대가 지금 그 시신을 욕되게 하였으니 이보다 더 천리에 어긋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전하게 하였다.⁶⁾

진국에서는 오국과 초국의 싸움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지만, 신포서가 7일 밤낮으로 물러나지 않고 대성통곡하며 도움을 요청하자 마지못해 도와주게 되었고, 결국 오국과 초국의 싸움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오국으로 돌아온 합려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越國을 공격했다가 越王 句踐⁷⁾의 반격으로 전사하고 말았다. 합려는 지금으로 치면 아마도 과상풍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듯하다. 손가락 혹은 발가락 쪽에 화살을 맞고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죽었다고 전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합려는 죽으면서 아들 夫差에게 월왕 구천에 대한 복수를 당부한다. 부차는 왕위에 올라 월국을 공격하여 마침내 승리를 얻었으나, 구천을 죽이라는 오자서의 조언을 듣지 않고 오국의 太宰인 伯嚭의 말을 듣고서 월왕 구천을 살려준다. 월국을 먼저 공격하여 멸망시켜야 한다는 오자서와 齊國을 먼저 점령해야 한다는 백비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면서, 오왕 부차는 오자서를 헐뜯는 백비의 말을 듣고서 오자서에게 자살을 명령한다. 오자서는 죽으면서, 오국이 멸망할 것이며 오왕도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담긴 저주를 퍼부었다. 이런 오자서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은 백비의 모함으로 부차는 결국 오자서를 자살하게 하고 다시는 시신이 떠오를 수 없도록 오자서의 시체를 가져다가 말가죽 자루에 돌과 함께 넣고 강물에 던져버렸다. 그로부터 9년 뒤, 월왕 구천은 마침내 오국을 멸망시키고 부차와 백비 모두 죽여 버렸다.

오국 시절의 오자서는 초 평왕에게 완전한 복수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6) 伍子胥求昭王。既不得，乃掘楚平王墓，出其尸，鞭之三百，然後已。申包胥亡於山中，使人謂子胥曰：子之報讎，其以甚乎！吾聞之，人衆者勝天，天定亦能破人。今子故平王之臣，親北面而事之，今至於僇死人，此豈其無天道之極乎！

7) 句踐(?-B.C.464): 본명은 鳩淺인데 월국과 중원지역 언어가 달라서 음역 후 句踐이 되었다. 會稽 즉 지금의 절강성 소흥사람으로 합려가 죽은 기원전 496년부터 기원전 464년까지 월국의 군주로 살았고 춘추오패 중 하나다.

자신이 거둬준 백비와 부차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서 씩씩하고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이런 오자서의 생애를 통해서 복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

3. <오자서전> 속 복수 이야기

오자서의 이야기를 다룬 <오자서전>에는 현존하는 성어가 다수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2개의 고사성어를 통해서 오자서와 그 주변 인물들의 복수, 그리고 중국 강남 지역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복수의 감정과 문화를 이해해 볼 수 있다. 먼저, 倒行逆施와 관련된 복수 이야기를 살펴보겠다.

3.1 倒行逆施

역울한 죽음을 당한 오자서의 부친과 형에 대한 복수다. <복수의 당위성과 가려진 고뇌>(강종임, 2019)에서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 중국인들의 내면에 깔려있는 복수 심리는 매우 깊이 뿌리박혀 있는 민족적 정서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들게 한다.

중국에서 지금까지도 곧잘 쓰이는 ‘군자가 원수를 갚음에 있어서 십 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君子報讎, 十年不晚)’라는 속담이나 ‘원한이 있는데 갚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다.(有讎不報非君子)’라는 말은 이러한 의혹을 확신으로 바꿔준다. 전자의 행간에 실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대한 기다림도 마다하지 않는’ 끈질긴 인내가 중국인의 가장 두드러진 장점이라는 점에서 복수에 대한 중국인의 관념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 복수라는 행위의 주체를 군자라고 한 점은 다소 의아하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도 말보다 실천을 중시하던 유가의 이념과 연관시켜 보면 수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행위를 군자와 연관시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⁸⁾

중국의 전통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 사상에서는 '仁義'를 강조하지만, 여기서 아이러니하게도 예외가 되는 것은 바로 '忠孝'를 위한 복수라는 것이다. 즉, 군자의 복수란 바로 국가와 가족에 대한 복수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목적이 명확하다면 인의를 실천해야 하는 군자라도 복수가 가능하고, 복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군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중국인들의 오랜 관념임을 위의 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오나라 병사들이 영에 입성하였을 때 오자서가 소왕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초 평왕의 묘를 파헤쳐 그의 시신을 꺼내어 300번이나 채찍질한 후에야 그만두었다.…… 그러자 오자서는 “나를 대신해서 신포서에게 사과하고 ‘해는 지고 갈 길이 멀어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해주게”라고 하였다.⁹⁾

바로 오자서도 위에서 말하는 부모와 형제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복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오국에서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서 마침내 초국 되돌아와서는 이미 죽은 평왕의 묘를 파헤쳐서 시신을 채찍질을 해서라도 복수의 소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군자로서, 아들로서, 동생으로서 명분을 다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오자서의 복수는 비록 도행역시로 남았지만 그에게는 끝내야만 했던 복수였다.

3.2 臥薪嘗膽

복수하면 떠오르는 고사성어는 臥薪嘗膽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복수를 위해서 노력하는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해서 복수를 이루는지를

8) 강종임, <복수의 당위성과 가려진 고뇌> (《중국어문학》 제81집, 2019, 32쪽)
 9) 吳兵入郢, 伍子胥求昭王。既不得, 乃掘楚平王墓, 出其尸, 鞭之三百, 然後已。伍子胥曰: 爲我謝申包胥曰, 吾日莫途遠, 吾故倒行而逆施之。(司馬遷, 《史記·伍子胥傳》, 北京: 中華書局, 1996 참고)

이 네 글자로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이 고사성어를 잘 알지만 이 이야기가 <오자서전>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와신상담이라는 말에서처럼 중국의 강남 지역 사람들이 가지는 복수에 대한 관념은 기원전 춘추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춘추 말기 지금의 중국 중남부 일대인 당시 吳國과 越國 사이의 결론을 알 수 없는 복수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 때 오자서는 복수의 중심이 아닌 주변인물로 등장한다. 와신상담은 “쇤나무 위에 엎드려 불편한 잠을 자고, 쓰디쓴 쓸개를 빨면서 과거의 치욕에 대하여 복수를 다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바로 부차와 구천 간의 원수지간에서 일어난 일을 두고 한 말인데 그 이야기를 잘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아래에서 인용해 보겠다.

춘추시대 오왕 합려는 월왕 구천과 싸우다가 크게 지고 말았고, 그는 월국 군대의 화살에 맞은 손가락에 상처가 덧나서 죽고 말았다. 그는 죽으면서 아들인 부차에게 구천에 대한 원수를 갚아달라는 유언을 남긴다. 오왕이 된 부차는 쇤나무 위에서 잠을 자면서 복수를 다짐하며 군대를 훈련시켰다. 마침내 오왕 부차는 월왕 구천과의 싸움에서 크게 이겨, 회계산으로 도망간 구천을 포위하였다. 오왕 부차는 구천을 죽여야 한다는 오자서의 말을 듣지 않고, 구천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백비의 말을 들어 구천의 항복을 받고서 살려준다. 구천은 월국으로 돌아가 쓸개를 빨면서 회계에서의 치욕을 되새기며 은밀히 군대를 훈련시켰다. 20년이 지난 뒤, 월왕 구천은 오왕 부차를 공격하여 굴복시키고 회계의 굴욕을 씻었다. 오왕 부차는 자살하고, 구천은 패자가 된다.¹⁰⁾

사실, '와신상담'이란 이 사자성어는 蘇軾이 《손권이 조조에게 답하는 편지 글의 형식을 빌어서 지어낸 글(擬孫權答曹操書)》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낸 것으로, 《사기》의 원문에는 월왕 구천이 “상담(嘗膽: 쓸개를 빨다)” 하는 내용만 있을 뿐, 그 누구도 “와신(臥薪: 쇤나무 위에 엎드려 불편한 잠을 자다)”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문인들이 소식의

10) 홍윤기·김준연·권운영, 《문화를 잇다 중국을 짓다》(서울: 뿌리와이파리, 2019, 48-49쪽)

문장을 즐겨 읽으면서 ‘와신상담’의 이야기는 《사기·오자서전》의 이야기로 문갑해서 전해져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합려는 죽으면서 부차에게 몇 가지 부탁을 했다. 그 중에서도 오자서의 안위를 부탁했다. 오자서는 합려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왔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인재였다. 합려는 사실 왕으로 즉위하고는 오자서에게 땅을 줄 테니 작위를 받고 편히 살라고까지 했다. 그러나 오자서는 이를 마다하고 본인의 복수를 위해 더욱 열심히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이끌었고 결국 초국의 멸망을 위해 온몸을 불살랐다. 그러나 부차는 합려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에게 아부하는 백비를 가까이 두었다.

同病相憐이라는 고사성어도 바로 오자서와 백비의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다. 백비는 원래 오자서를 통해서 오국에 들어오게 된 초국 사람이었다. 오자서는 비무기의 모략으로 가족을 잃고 오국으로 달아나 오왕 합려의 大夫가 되었는데, 백비도 비무기의 모략으로 온 가족이 몰살되어 오국으로 달아나 오자서를 찾아왔던 것이다. 주위 사람들은 백비를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주고 오왕에게 소개하는 오자서를 보고 경계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오자서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는 서로 가엽게 여긴다.”는 뜻의 同病相憐의 노래가사를 통해서 같은 원한을 지닌 처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백비는 나중에 太宰에 올랐고, 오자서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배신을 서슴치 않는데 말이다.

3.3 중국의 복수 문화

오자서가 죽음에서 남긴 것 역시 복수였다. 그의 일생은 가족을 위한 복수였다면, 사후의 복수는 자신에게 자살 명령을 내린 오왕 부차에 대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모두 매우 잔인하고 처절하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죽기 전에 자신의 지인들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말한다.

아! 讒臣 백비가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거늘 왕은 도리어 나를 주살하는구나. 내가 그의 아버지를 패자로 만들었고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여러 공자들이 왕위를 다투고 있을 때 내가 죽음으로써 선왕과 그 점을 다투었으니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거의 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나에게 오국을 나누어주려고 하였을 때 나는 감히 그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그는 아침하는 간신의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 나의 묘위에 반드시 가래나무를 심어 관재로 삼도록 하라. 그리고 내 눈알을 도려내어 오국 동문에 걸어두어 월국 군사들이 쳐들어와 오국을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라고 하고 스스로 목을 찢어 죽었다.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한 오왕은 오자서의 시체를 가져다가 말가죽 자루에 넣어 강물에 던져버렸다.¹¹⁾

그의 광기어린 복수심은 그가 죽은 후에도 부차에게 두려움으로 남았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부차는 합려의 유언을 따르지 않고 그에게 屬鏹라는 검을 직접 내리고 죽으라고 한 것인데, 부차는 그의 시신을 직접 거두어 말가죽에 넣어 다시는 그의 시신을 꺼내지 못하게 강에 던져 버린다. 후에 부차가 죽으면서 오자서의 말을 듣지 않고 구천을 살려둔 것이 후환이 되어 복수로 돌아왔다고 후회하지 않았을까.

오자서도 이미 죽은 평왕의 시신에 채찍질을 하고 나서, 친구인 申包胥에게 자신의 '복수'에 대하여 "해는 지고 갈 길은 멀었기 때문에,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아마도 평생을 두고 이루려던 '복수'에 대해 허무함을 느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의구심을 갖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자서가 죽은 이래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것처럼 집요하고 처절하고 잔인한 복수를 실천한 인물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허구의 문학 작품에서조차도 그와 같은 확실한 복수의 화신다운 인물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마천 역시 자조적인 어투로 태사공자서에서 복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간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11) 嗟乎! 讒臣顛爲亂矣, 王乃反誅我. 我令若父霸. 自若未立時, 諸公子爭立, 我以死爭之於先王, 几不得立. 若既得立, 欲分吳國予我, 我顧不敢望也. 然今若听諛臣言以殺長者. 乃告其舍人曰: 必樹吾墓上以梓, 令可以爲器; 而抉吾眼縣吳東門之上, 以觀越寇之入滅吳也. 乃自剄死. 吳王聞之大怒, 乃取子胥尸盛以鴟夷革, 浮之江中. (司馬遷, 《史記·伍子胥傳》, 北京: 中華書局, 1996, 참고)

태사공은 말한다: 사무친 원한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참으로 크다! 왕이라고 하더라도 신하에게 원한을 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니, 하물며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할 나위가 없다! 일찍이 오자서가 아버지 오사를 따라 같이 죽었다면 하찮은 땅강아지나 개미와 무엇이 달랐겠는가? 그는 小義를 버리고 큰 치욕을 갚아 명성이 후세에까지 전해졌다. 슬프도다! 오자서는 강가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하였었고, 길에서도 걸식을 하였었는데, 그럴 때에도 마음속에 잠시라도 초국의 수도인 郢을 어찌 잊은 적이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그는 모든 고초를 참고 견디며 공명을 이룰 수 있었으니, 뜨거운 가슴을 가진 대장부가 아니었다면 어느 누가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¹²⁾

사마천은 오자서가 아버지와 형을 따라 죽었다면 하찮은 땅강아지나 개미와 다르지 않고 대의를 위해서 복수를 택한 것에 대해서 치하하고 있다. 게다가 그가 비록 복수를 위해서 갚은 고초를 치루고 초국을 배신했지만, 그의 개인적이고 당위적인 복수 때문이지 나라를 배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시간의 복수의 관념이 얼마나 오랜 시간 자리잡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오자서와 그의 복수에 대해서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이후 중국의 여러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문학 특히 소설문학으로서의 《吳越春秋》 연구>(김영식, 2012)¹³⁾에서 잘 정리되어 있다. 《吳越春秋》는 漢代 趙曄이 지은 것으로 남방의 오국과 월국의 경쟁 구도와 패권 싸움을 하는 흥망성쇠를 그린 작품이다.

吳越의 역사가 伍子胥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은 분명 아니었지만, 《오월춘추》는 오자서가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으며 그의 언행과 거취가 가장 파급력이 있도록 다루어져 있다. …… 오자서를 강인한 의지력과 지혜와 용기, 충의를 지닌 인물로 형상화했으며, 특별히 자신의 모든 역량을 모아 원수를 갚고야 마는

12) 太史公曰：怨毒之於人甚矣哉！王者尚不能行之於臣下，況同列乎！向令伍子胥從奢俱死，何異螻蟻。棄小義，雪大恥，名垂於後世，悲夫！方子胥窘於江上，道乞食，志豈嘗須臾忘郢耶？故隱忍就功名，非烈丈夫孰能致此哉？（司馬遷，《史記·伍子胥傳》，北京：中華書局，1996，참고）

13) <문학 특히 소설문학으로서의 《吳越春秋》 연구>(《중국문학》 70집, 2012, 139-140 쪽 참고)

복수 정신의 화신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작품 내에서 가장 강렬한 성격의 인물로 기억되게 부각시켰다.

작자는 이처럼 오자서를 긍정적인 인물로 형상화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줘 인물 묘사에 성공했다. 소설작품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데에는 여러 요소들이 작용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독자들에게 인물을 얼마나 인상적으로 형상화하느냐가 한 요인이라고 볼 때 《오월춘추》에서의 오자서 묘사는 분명 전형적인 인물상을 제시했기에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영식은 이처럼 논문에서 《오월춘추》에서의 오자서 인물 이미지 형상화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역량을 가지고 원수를 갚는 복수의 화신으로서의 중국의 대표적인 인물로 각인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이것이 《오월춘추》가 문학작품으로서 사랑받게 되는 이유임을 밝혔다. 여기에서 오랜 기간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수관, 복수 문화가 얼마나 고착화되어 있는지, 그러한 이미지가 결국 문학작품과 중국인의 생활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게 되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번은 주한중국문화원에서 <오자서전>과 관련된 강연이 있었다. 이때 한 청중이 강연자가 아닌 중국인 한 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중국인은 복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까?”라고 간단하게 물었다. 우리 모두 당황하면서 중국 사람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는 담담하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중국사람에게 복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배신을 당하거나 할 때 복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역사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가 꾸밈없는 말투로 대답한 그 장면이 강연자인 필자에게도 오랜 시간 울림이 있었다. 중국 사람들의 복수란 그런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과연, 나를 배신한 사람에 대해 복수를 꿈꾸는가? 확신하는가? 한국인이 생각하는 복수에는 분명히 중국의 복수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간단히 논의해 보겠다.

4. 한국 대학 수업에서의 <오자서전> 재현

오자서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2000년대 이후로 '복수'라는 키워드와 함께 등장한 이슈이기도 했다. 아래의 4편의 논문을 보면 오자서에 관한 콘텐츠, 중국의 복수문화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첫째, <伍子胥 이야기의 전승, 변화 그리고 영향 — 元明清 戲曲 작품을 중심으로>(이은영, 2007)으로 오자서 이야기의 변화와 전승에 관해서 살펴봤다. 그 중에서 희곡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통사적 연구가 상세하게 되어 있다.

둘째, <역사인물 오자서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인식태도>(윤세순, 2013)가 있다. 초국을 등지고 오국에 가서 정치 생활을 하고 이후에 가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 초국을 배신한 오자서의 행동에 대한 당시 지식인들의 논쟁 자료를 모아서 쓴 논문으로 조선시대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정치의식과 복수관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셋째, <복수의 당위성과 가려진 고뇌-효에 바탕한 복수서사를 중심으로>(강종임, 2019)은 최근 연구이고 본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복수'에 대한 키워드를 '충'과 '효'에 바탕한 복수에서 살펴본 연구로 중국의 복수관에 대해 심도 있게 정리한 선행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최근에 발표된 논문 중에서 <《史記 伍子胥列傳》에 투영된 역사 재편의 함의>(양중석, 2020)는 '충'과 '효' 사이의 복수의 당위성 논쟁부터 사마천이 재편한 오자서 이야기를 《오월춘추》 등에 비교 정리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오자서의 이야기는 중국 문학, 중국 문화 방면에서 다량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어져 왔고, 특히 최근에는 문화 방면의 연구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생생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중국 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

다. 희곡뿐만 아니라 소설, 현대 드라마에도 등장한다. 그러나 오자서의 이야기가 복수 이야기로 사랑받는 이유는 그 안에 부차와 구천의 복수 스토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4장에서는 연구자들의 오자서 연구 내용이 아닌 필자가 대학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대학생들의 오자서, 부차와 구천의 복수이야기, 중국의 복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필자가 2018년 서울의 모 대학의 학생들에게 오자서의 일생과 복수 이야기를 강의한 후 학생들이 특히 더 중요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복수 문화와 다른 중국의 복수 문화가 상상보다 더 처절하고 단호했기 때문이다. 또, 당시 한국은 중국과 사드 문제로 외교적 갈등을 겪었고 한중 관계의 긴장감을 경험한 바 있어서 오자서의 복수 이야기와 중국의 복수 문화는 학생들에게 더 크게 다가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오자서의 일생과 복수에 대한 문화적 요소를 이해한 후, 이를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재현한 바 있는데, 한국의 젊은이들이 중국의 콘텐츠를 받아들이면서 ‘복수’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우리 방식으로 인식되고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4.1 한국대학생의 오자서 문화콘텐츠개발을 통한 ‘복수’의 해석(1)

먼저 한국의 대학생들이 <오자서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한 내용을 예 중에서 드라마 콘텐츠 개발의 예를 들어보겠다.

해당 과제는 ‘원소스 멀티유즈’의 일환으로 한 학기 동안 학습했던 중국의 인물 이야기 중에서 한 인물의 이야기를 골라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보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문화콘텐츠의 분야는 아무래도 드라마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게임, 웹툰 순이었다. 총 50여 명의 학생들이 13개조로 나눠서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도 오자서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았다. 특히 제

무기는 진그룹의 로비에 넘어갔고 초평왕에게 진그룹을 봐주고 진그룹의 아름다운 장녀인 진맹영과 결혼하면 지검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고 설득하였다. 초평왕은 아침꾼 비무기에게 설득당했고 사건을 무마시켰다. 초평왕은 결국 진맹영과 결혼하였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든든한 뒷배경으로 인해 서부지검장까지 승진한다.

초평왕은 아끼던 초건 및 오사를 지방 한직으로 잠시 보내고자 하였으나 비무기는 후한이 될 수 있으니 이 둘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씌워 아예 파면시키자고 이간질하였다. 고민하던 평왕은 이 둘을 검사계에서 완전히 추방시켰다. 주변으로부터 엄청난 못매를 맞으며 비난을 받던 건은 초평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해 비리를 차마 폭로하지 못하고 자살하였고, 오사는 부인과 큰아들과 차를 타고 가던 중 권력에 눈이 멀어 이성을 상실한 초평왕과 비무기에 사주를 받은 트럭에 치여 살해당하고 만다. 오사의 막내아들인 오자서는 운 좋게도 함께 죽지 않았고 부모님의 장례절차를 마무리하다가 진그룹 비리관련 파일을 발견해 초평왕과 비무기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다. 오자서는 갖가지 고초를 겪었으나 이 사정을 딱히 여기고 평왕을 견제하였던 동부지검 부장검사인 오합려의 후원을 받게 되고, 뒤늦게 로스쿨에 들어가 검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4년 후, 합려의 후원을 받은 오자서는 결국 검사가 되어 그 밑으로 들어가 일하게 된다. 오자서는 합려가 동부지검장이 되는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동시에 유능한 법조인이었지만 변호사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제손무를 천거한다. 오자서와 손무는 합려와 라이벌관계에 있던 서부지검장 평왕을 몰아내기 위해 노력한다. 이 셋은 진그룹과 관련된 평왕의 비리를 언론에 폭로하였고 평왕은 검사직에서 파면당해 결국 자살하였으며 비무기와 진그룹 역시 해체 수순을 밟았다.

이후, 검사계에서 절대권력을 차지하기 직전에 이른 오합려는 제손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눈에 띄기 위해 상담반도체를 표적 수사하였다. 월구천이 대표로 있는 상담반도체는 가만히 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언론에 합려와 관련한 뇌물수수혐의 소스를 뿌렸다. 결국 오지검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재기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합려에게는 공학천재인 오부차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와신이라는 반도체 관련 스타트업의 대표였다. 부차는 이 일이 있는 후, 자신의 아버지 밑에서 충직하게 일하던 오자서 검사와 손을 잡고 반격을 준비했다. 그 와중에 오자서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던 백비라라는 여자를 만나게 된다. 오자서는 백비라는 여자를 안쓰럽게 여기며 호감을 느끼고, 그녀를 부차의 비서로 앉히게 된다. 구천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부차는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오자서는 상담반도체의 주요 인물을 매수하여 내부 고발을 유도함과 동시에 기술을 빼온다.

부차 때문에 기업이 흔들리게 된 구천은 복수를 도모하며 부차의 비서였던 백비의 탐욕스러움을 파악하였고 그녀를 매수해 와신반도체의 정보를 빼내어 다시

상당반도체를 살린다. 이 과정에서 오자서는 백비를 의심하게 되고, 위협을 느낀 백비는 부차에게 오자서를 멀리 해야 한다고 이간질한다. 과거 오자서가 초평왕의 비리를 폭로한 사건을 들먹이며 부차를 설득했고, 이에 부차는 백비 말대로 오자서가 위협의 싹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를 파면 당하게 만든다. 그동안 충직하게 믿고 따라왔던 부차에게서뿐만 아니라 연민의 마음으로 믿었던 백비에게도 배신당하면서 오자서는 큰 충격에 빠졌고 더 이상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견딜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에 들어간다. 이후 백비는 부차 옆에서 구천의 스파이로 회사의 엄청난 기밀 자료를 건네주었고 결국 와신반도체는 부도를 맞는다.¹⁴⁾

본 과제에서는 이 드라마 시놉시스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의 복수는 '용서'가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내용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물론, 위의 이야기는 학생들의 즐거이에 교수자의 피드백이 추가되었고 약간의 수정이 가미된 바 있다. 특히, 결론 부분에 대해서 교수자는 좀 더 한국적인 색채를 요구했고, 학생들의 과제는 결국 복수의 허무함과 인생무상을 느끼고 초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되게 되었다. 특히, 오자서와 함께 오국의 전장을 활보했던 제손무와 동병상련의 노래로 등용된 백비를 여성 배우로 캐스팅한 것은 새로운 변화로 받아들여졌고 매우 인상 깊었다.

4.2 한국대학생의 오자서 문화콘텐츠개발을 통한 '복수'의 해석(2)

두 번째 주목할 만한 오자서 관련 콘텐츠는 바로 모바일 시뮬레이션 게임 개발이다.¹⁵⁾ 세대 교체를 의미하는 콘텐츠 개발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보통 문화콘텐츠라고 하면 드라마, 소설, 뮤지컬까지는 그간 들어봤지만, 2017년

14) 2018년 1학기 고려대학교 <인물로 보는 중국문화> 수업에서 문화콘텐츠 개발 과제 중 한 부분이다. 제9조 학생들의 과제 내용을 기반으로 수정 보완 및 정리했다. 본 과제에 성실하게 참여해 준 원예림, 원지희, 조유라, 조찬혁 학생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15) 동일 학기 동일 수업에서 문화콘텐츠 개발 과제 중 한 부분이다. 제2조 학생들의 과제 내용을 기반으로 수정 보완 및 정리했다. 본 과제에 성실하게 참여해 준 정혜인, 노호현, 박광희, 홍가영 학생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부터는 웹툰, 7분 드라마, 웹 예능, 게임 등은 1020세대에게 익숙한 문화콘텐츠산업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콘텐츠는 바로 게임이었다. 서두에 아래와 같이 개발 계획 의도를 밝혔다.

현재 한국의 문화는 미국과 서양 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많은 10대, 20대들은 미국의 문화를 향유하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 중국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 미국과 대등해질 것이고, 한국의 문화, 경제 등 많은 부분이 중국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복수심. 하지만 한국의 복수 감정과 중국의 복수 감정은 큰 차이가 있다. 중국 복수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오자서의 이야기를 게임으로 만들면 한국의 10대, 20대에게 한국과는 다른 중국의 복수에 대해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게임을 통하여 중국의 정서와 역사를 재밌게 공부하여 중국을 이해하는 데 한발 다가가는 것, 그것이 이 게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다.¹⁶⁾

학생들은 한국과 중국의 복수 감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게임 스토리의 엔딩 종류도 세 가지로 분류해서 개발하고자 했다. 우선 새드엔딩이다. 즉, 복수를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을 뜻한다. 복수는 완수했으나 오자서가 죽게 되는 데드엔딩, 복수도 완수하고 오자서도 생존하게 되는 히든엔딩 즉 해피엔딩 이렇게 세 가지 엔딩 스토리를 기반으로 게임을 개발하고자 했다. 서로 다른 엔딩을 정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도 했다. 이 게임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1020세대를 주 타겟으로, 직장과 가정 그리고 인간관계에 시달리는 30대에게도 좋은 탈출구가 될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또한 오자서의 이야기가 어떤 게임 스토리보다 '자극적'인 복수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한국 대학생들에게는 오자서의 일생은 역사 이야기로서 리얼리티를 가미한 매우 자극적인 콘텐츠에 적합한 '원소스'라고 판단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게임에는 두 가지 특징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캐릭터 설정이고 두 번째가 BGM의 설정이었다. 다음은 그 중 특징적인 부분을 발췌 및 정리한 내용이다.

16) 학생들이 밝힌 계획 의도 중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오자서는 중국 대표적 복수의 화신. 따라서 복수에 대한 의지가 느껴지는 강한 눈매와 날렵한 코, 초롱초롱한 눈동자를 갖고 있는 인물로 형상화한다. 긍정적인 인물을 붉은색으로 표현하는 중국의 관습에 따라 얼굴색을 붉은색이 감돌게 표현하고 붉은색 옷을 주로 입고 등장시킨다.

비무기는 오자서의 아버지인 태부, 오자서와 태자 건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조리 죽이려는 인물이다. 사악하고 비열한 인물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눈매를 치켜세우고 좁은 이마, 들창코, 굽은 허리 등을 표현하여 비무기를 표현한다. 얼굴색은 하얗게 표현하여 인물의 비열함을 더욱 더 강조한다.

백비는 오자서에게 발탁되어 중용되지만 오자서를 배신하고 구천에게 뇌물을 받고 결국 오자서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인물. 지조 없고 이익을 좇아 행동하는 앞잡이 같이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 후에 결국 구천에게조차 배신당하여 죽음에 맞는 인물이기에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 그 효과는 더욱 강조한다.¹⁷⁾

플레이 BGM으로는 드라마 司馬懿 OST의 오프닝 곡을 통해서 조용하고 싸늘하게 시작했다가 웅장하면서 쓸쓸하게 그리고 다시 격렬하게 바뀌는 느낌을 살리고자 한다. 데드엔딩은 司馬懿 OST 중 短歌行으로 정해서 자신의 눈으로 복수를 직접 보지 못한 심정을 표현하고자 한다. 새드엔딩은 <Stratovarius의 Forever>로, 해피엔딩에는 애니메이션 이누야샤 OST인 <시대를 초월한 마음>으로 오자서의 심정을 표현하고자 한다.¹⁸⁾

캐릭터 설정에 있어서는 중국의 전통극의 색감을 살려서 표현함으로써 중국 문화의 독특한 특색을 부각시키고자 했고 장수의 비장함과 배신자의 비열함, 우스꽝스러움을 강조하는 등 캐릭터 설정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또한 BGM은 당시 유행하기도 했고 수업시간에 완성도 있는 중국의 역사극으로 추천한 《司馬懿》에 등장한 오프닝곡이나 조조의 비분강개하고 장중한 어조 등이 드러나는 곡조를 선택함으로써 중국의 고전적 색깔을 살려보고자 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BGM의 곡조가 엔딩의 종류와 상관없이 차분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오자서의 복수가 성공한 해피엔딩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성공의 기쁨이나 희망을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오자서 일생 자체에 대한 애환의

17) 캐릭터 설정 중 오자서와 갈등 구조 인물인 비무기와 백비의 인물 캐릭터 설정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18) BGM 설정 중 게임플레이 배경 음악, 새드엔딩, 해피엔딩에 대해 예시를 정리한 내용인데 이 중에서 특히 해피엔딩 BGM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감정을 BGM을 통해 집중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제 발표 시 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해하고 표현하는 오자서 복수 이야기의 종합적인 감정이 ‘통쾌’보다는 ‘처절’과 ‘애환’에 가깝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5. 결론

이 밖에도 오자서에 대한 문학적, 문화적 방면의 각 영역 연구는 잘 진행되어 왔지만, 이 두 가지를 접목한 연구는 쉽게 찾을 수가 없다. 중국의 역사 이야기가 문학작품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서 중국의 뿌리 깊은 문화적 요소를 도출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연구 방향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였고, 여러 영역을 복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서사문학과 문화적 요소를 통해서 현대 중국의 복수 문화를 이해하는 근원을 규명하는데 앞으로도 연구를 이어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중국이 체면과 자존심을 내세우고, 작은 오해로 의도치 않은 갈등을 낳고 과도한 복수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치, 외교, 경제 분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여러 역사 이야기를 통해 유추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또, 사드와 관련된 한중 관계의 변화가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도 위협을 느끼는 만큼 중국의 이와 같은 복수 문화를 충분히 인지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큰 피해를 막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역적으로는 가깝지만, 오랜 역사 동안 서로 다른 지역적 특색과 문화적 특색을 가지면서 어떤 면에서는 확연한 문화적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인간의 보편적 심리와 그 행동으로서의 복수와 문화 현상으로서의 복수의 차이점, 한중간의 복수에 대한 개

념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공통 점과 차이점, 그리고 상대적 논리를 통해서 문학과 문화 연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양국의 문화를 심도 있고 실재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본다.

< 參考文獻 >

- 사마천 원저, 정범진 외 역, 《사기열전-상》, 서울: 까치, 1995.
- 사마천 원저, 이인호 새로 씀, 《사기열전》, 서울: 천지인, 2009.
- 이수광 지음, 《오자서열전》, 서울: 아리샘, 2012.
- 공원국 지음, 《통쾌한 반격의 기술 - 오자서 병법》, 서울: 위즈덤하우스, 2014.
- 조엽 저, 임동석 역주, 《오월춘추》, 서울: 동서문화사, 2015.
- 백영길, <馮至 《伍子胥》의 '怨恨' 敘事構造>, 《중국어문논총》 28집, 2005.
- 이은영, <伍子胥 이야기의 전승, 변화 그리고 영광 — 元明清 戲曲 작품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50집, 2007.
- 정혜경, <《伍子胥變文》登場人物小考>, 《중국어문학논집》 56집, 2009.
- 유봉구, <馮至의 역사소설 <伍子胥> 연구 - <伍子胥>의 人生哲學的인 선택의 문제 고찰>, 《중국연구》 45집, 2009.
- 이행렬, <春秋시대 吳와 越의 都城과 園林 文化景觀>, 《중국학논총》 30집, 2010.
- 김영식, <문학 특히 소설문학으로서의 《吳越春秋》 연구>, 《중국문학》 70집, 2012.
- 윤세순, <역사인물 오자서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인식태도>, 《민족문화사연구》 51집, 2013.
- 정광훈, <唐代 중후기 통속서사 사본에 대한 문화사적 해석 — <伍子胥變文>의 교정 방식을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 55집, 2018.
- 주문량·고광민, <試論朝鮮文人對伍子胥的接受>, 《중국어문학논집》 119집, 2019.
- 박순철, <健菴 金炯觀의 中國歷史人物에 대한 報仇論 考察 -荊軻, 豫讓, 伍子胥, 張良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63집, 2019.
- 강종임, <복수의 당위성과 가려진 고뇌 - 효에 바탕한 복수서사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81집, 2019.
- 양중석, <《史記 伍子胥列傳》에 투영된 역사 재편의 함의>, 《중국어문학지》 72집,

2020.

심은경 · 김원중 · 김연지, <<伍子胥列傳>의 역행적 서사구조를 통해서 본 怨恨의 重意的 層位 - <越王句踐世家> · <楚世家> · <吳太伯世家>와의 비교를 곁하여>. 《중국어문학논집》 74집, 2020.

[그림 1] 출처: https://gimg2.baidu.com/image_search/src=http%3A%2F%2Fimg.mp.sohu.com%2Fupload%2F20170704%2Ff5bf5816f72a47888ea88310a0261e73_th.png&refer=http%3A%2F%2Fimg.mp.sohu.com&app=2002&size=f9999,10000&q=a80&n=0&g=0n&fmt=jpeg?sec=1611506413&t=97df87b7584cfad81e64e01df663eb8f

< Abstract >

A Study on Wu Zixu(伍子胥) and Chinese Revenge Culture

Kwon, Eunyoung

Wu Zixu lived in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of China, a complicated period during which wars were fought for a long time before the national era, and wars continued in the same country due to power struggles such as Jehu and Daebu. Wu Zixu lived in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of China, a complicated period during which wars were fought for a long time before the national era, and wars continued in the same country due to power struggles such as Jehu and Daebu. He is a Gangnam district in China who was abandoned in the State of Chu, and then led the heyday of the Five Kingdoms with Sun Zi Bing Fa's Sun Wu in the State of Wu. But it was to avenge him after his father and brother died unjustly. His story is a representative revenge story in Gangnam, China, and has been handed down for thousands of years through various genres such as novels, plays, and operas.

I taught the story about Wu Zixu in my major class at university and

developed various cultural contents based on it. Unlike the concept of revenge in South Korea, the students understood and expressed China's revenge with great irritation and desperation. We understood that revenge goes on endlessly and eventually everyone becomes hard and miserable. However, in the Korean cultural industry market, such Chinese style revenge stories were judged to have limitations in marketing and were modified to more passive revenge stories. In addition, in the game contents, in Happy Ending, which succeeded in revenge, BGM was set as background music suggesting complex emotions similar to joys and joys rather than joys, indicating that Korean revenge has a message of the futility of revenge.

It was judged that this was due to th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at there must be a reason why it was acquired through a long history. Through this study, I was able to confirm once again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universal psychology of human beings and the revenge as their actions and the revenge as a cultural phenomenon, and the concept of revenge between Korea and China. Through these cultural similarities, differences, and relative logic between Korea and China, we hope that it will contribute to an in-depth and practical understanding of both countries' cultures.

Key words: Wu Zixu(伍子胥), revenge culture, go against the trend of the times(倒行逆施), sleep on brushwood and taste gall(臥薪嘗膽), cultural contents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20. 10. 31	2020. 11. 12 - 11. 22	2020. 12. 4	2020. 12. 7	2020. 12. 31

